# 프라그마티스트 미학과 몸의 의식

# 리처드 슈스터만과의 인터뷰

## 윌리엄 가라타와 페트리샤 오스가넌 인터뷰

***무브먼트****와의 인터뷰에서, 리쳐드 슈스터만은 그의 학문적 경로를 이룬 다양한 국면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 프라그마티즘의 미학에서 신체의 미학으로 --- 그리고 그를 대중문화를 다루는 철학자로 만들어온 것들에 대해서. 경험과 몸의 프리즘뿐만 아니고 사회적 암시를 통해 대중문화를 검토하면서, 특히 힙합과 랩 문화에 있어서 그는 얼마나 대중문화의 인식이 실제의 정치적 이슈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시장과 제도의 조종에 사로잡힐 위험성을 강조하였다.*

*M : 프라그마티즘의 미학 (L’art a l’etat vif )은 힙합, 랩, 스카러피케이션(scarification)[[1]](#footnote-2), 문신을 포함한 대중예술의 미학적 정당화의 전망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였는데요. 박사님은 1980년 이래의 이러한 문화적 동향에 있어서 스스로를 미적 정당화를 옹호한 처음의 인물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리처드 슈스터만: 첫째로, 프라그마티즘의 미학은 힙합문화에 초점을 맞추고있습니다. 랩, 하층민(tags), 브래이크 댄스,등등을 말이죠. 그리고 록 뮤직과 텔레비전도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나는 한번도 스카러피케이션과 문신을 본격적으로 다룬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체의 미학에 관련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들에 대한 논의를 명백하게 잡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나는 컨트리 뮤직에 대한 미적 가치에 대해 긴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은 불행하게도 아직 프랑스어로 번역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은 나의 『행위하는 삶(*Performing Live*)』이라는 책에 한 부분입니다. 나는 컨츄리 뮤직의 진정한 팬은 아니지만, 그것은 확실히 미국의 지식인이 가장 경멸하는 음악이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유럽의 지식인들도 가장 혐오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피에르 보르듀가 내가 랩을 대중음악의 에로서 든 것은 미적 아방가르드의 정신과 랩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반박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가장 미국음악의 가장 대중적인 장르를, 그리고 특히 국가주의적 성격에서 미국 “사람”의 대중음악을 미학이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보이고 싶었습니다.

랩의 미적 정당화에 응답하기 위해서, 나는 랩이 다른 레벨에서 미적 인식을 가졌다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랩은 그래미 시상식에서 아무런 자리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음악 장르로 조차도 취급되지 않았죠. 현재 그래미에서 랩은 많은 상을 받고 있어요. 작년의 그래미에서는 “랩 쏠로 부문 베스트”, “듀오 또는 그룹 랩 부문”, “랩퍼와 싱어의 합작 베스트”, “베스트 랩송 부문”그리고 “베스트 랩 앨범 부문”의 시상이 있었습니다. 랩은 또한 학문적 영역에서 미적 대상으로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책과 문서가 랩의 사회적, 정치적 의의뿐만 아니라, 그것의 시적 형식, 음악적 테크닉 그리고 랩의 의미론적 복합성에 대해 쓰여졌습니다.

현재 이 분야에 대해 나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는 미학계의 젊은 학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연구 분야를 그들에게 넘기는 것에 만족합니다. 1980년말부터 1990년초에 저는 프로스트라는 가명으로 규칙적으로 랩 잡지에 글을 썼습니다만, 지금은 그때처럼 랩에 친숙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때 저는 힙합 문화에 대한 본인의 관심 때문에 야만적 범죄자 취급을 받았었는데, 그때부터 우리는 랩의 정당화에 있어서 현저한 발전을 해왔습니다.

M.: 박사님 생각에는 이러한 정당화가 순수하게 미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사회적 정치적 영향이 관련된다고 생각하나요? 1980년대 이후, 즉 힙합 문화의 사회-정치적 주장의 성격이 드러난 후부터 현저하게 그것의 비평적 태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랩이 성숙했다는 징표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제도적 그리고 상품적으로 표준화 되었다는 표시일까요?

R. S. : 미적 순수함의 개념 뿐 아니고 순수한 미적 정당화의 문제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적, 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는 우리의 관심, 취미, 그리고 우리의 지각기능의 상태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회, 정치, 문화적 기반에 근거한 우리의 삶의 형태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미적 판단이 사회제도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미적 비평에 있어서 정당화의 영역, 변호, 원리는 표준적 사회-정치적 변호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한 미적 영역과 논리적 사고의 양식을 대중예술을 다루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술작품과 예술적 동향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가 종종 그들의 미적 의의와 그들의 미적 호소력에서 형성된다는 것도 동등하게 인식되어야만 합니다. 랩에 있어서 나에게는 이것이 항상 명백하게 보입니다. 나는 중요한 사회-정치적 영향이 랩에 의해 표현의 예술적인 형태로 구체화 되는 것 방식에 매우 끌리고 있습니다. 미학적 인식의 사회적 구성작용의 질문 밖이라도 말이죠. 랩이 사회적으로 언급된 사회적 정치적을 목적을 어떻게 거절하는지, 신중하게 미학적 인식 또는 정당화를 어떻게 강조하는지는 또한 중요한 정치적 문제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힘(또는 영향)은 랩 송의 미적 경험의 강력함을 늘립니다. 프라그마티즘의 미학과 실천하는 철학에서의 나의 분석은 이러한 점들을 랩 송의 예를 통해 설명합니다. 나는 프랑스의 최신의 랩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의 랩은 좀 더 잘 알지도 모릅니다. 미국에서 랩의 정치적 힘은 갱스터 문화와 상품주의에 향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아이스 티(Ice - T)가 이러한 관점에서 전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의 앨범 *Ice - T O.G. Original Gangster* (1991)를 발매 했을 때, 이미 로스엔젤레스에서 매우 유명한 스타 MC였습니다. 그것은 갱스터 랩을 가장 강한 랩 장르로 만들었는데, 메디아로부터의 주목과 상품으로서의 성공뿐 아니라, 문화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갱스터 랩이 큰 매디아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매디아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매우 보수적이었으며, 그들 중 정책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랩의 범죄적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원래 갱스터 랩을 듣는 사람들, 즉 흑인, 빈민층, 젊은이에게 범죄 이미지을 씌우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하드코어에서 매우 상품적인 음악 “짭새 킬러(Cop killer)”을 만드는 반역자로서의 아이스 티의 개인적인 변모 그리고 세속적 티비 쇼(법과 질서: 범죄 인터넷)에서 뉴욕의 경찰을 연기하는 유명 배우로 된 것은 아마도 랩의 제도적 표준화와 상품화의 전형일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발전의 이전의 랩 문화를 좋아했습니다.

M.: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화를 힙합과 테크노에서 뿐만 아니라 문신과 스카러피케이션에서도 그들만의 독특한 가치가 표준화되는 것에 대한 저항이 있지 않았나요? 종래의 개념을 깨는 방식으로 몸을 연출하는 것은 많은 새로운 관습에서 지식층의 문화와 상업적으로 선전된 바디빌딩의 개념 양쪽에 있어서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데요. 예를 들면 가장 잘 알려진 프랑스의 슬래머[[2]](#footnote-3) 는 그랑 꼴쁘스 말라드(Grand Corps Malade 커다란 아픈 몸)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R. S. : 맞습니다. 어떤 문화 중에는 기본적으로 중심 되는 문화의 성격과 반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중문화에 대한 나의 작업에서 내가 “매스 아트(mass art)”가 아닌 “대중 예술(popular art)”이라는 개념을 강조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매스 아트는 본질적으로 더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과 가장 평범한 사회적 가치와 가장 본격적으로 스테레오타입을 전개하는 것으로 정의 됩니다. 몸의 미쟝센(연출하기), 특히 몸에 동작을 부여하는 것은 힙합에 있어서 처음부터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몸과 성에 대한 랩의 개념은, 적어도 미국의 뮤직 비디오에서는, 매우 정형화 되어 있고, 종종 매우 성차별적이고, 남성우월적이며, 게이 혐오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랑 꼴쁘스 말라드라는 슬래머는 저는 모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프랑스 랩 영역에서 MC로 정의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왜 그런 이름을 택했는지는 그의 척추의 심한 부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년간의 신체 재활 훈련을 통해 다리를 사용할 수 있게 회복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경우를 예로 대중예술의 관점에서뿐 아니라, 그것이 신체의 미학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잡지 필로소피(March 2008)가 나의 책 『몸 의식하기: 신체의 미학을 위한(*Body Consciousness: For a Somaesthetics*)』에 대해“그랑 꼴쁘스 비방(Grand Corps Vivant: 커다란 건강한 몸)”이라는 표제로 다룬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M.: 박사님은 랩을 “철학적 삶”이라고 이야기해 왔는데요. 이것은 삶의 방식을 예술적 표현의 형식으로 주입하는 것을 암시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랩이나 문화적 산물과 존재의 형태의 다른 더 직접적인 형태의 연결 같은 문화적 동향의 과격한 특성을 의미하나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문화의 따라 하기나 과격한 조성의 위험이 그들이 전달되는 것에 관련되어있지 않나요?

R. S.: 저는 이러한 동향들(예를 들어 힙합)에만 국한되어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적 표현에 삶의 양식을 주입하는 것은 현재 매우 유명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컨츄리 뮤직뿐아니고 현대 고급 예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고급 예술은 대부분의 예술작업이 가깝고 직접적으로 예술가의 삶의 방식과 성격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프라그마티즘의 미학에서 보면 언제나 예술적 표현과 삶의 방식이 (때로는 복잡하고, 숨겨져 있고, 심지어는 부정되기까지 해도)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예술은 공백이나 우리가 사는 현실세계의 완전한 바깥세상에 존재하는 “예술계(art world)”에서 창조되지 않습니다. 과격한 조성의 위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위험이 없는 예술이나 삶은 없다고 대답하고 싶군요. 또한 예술 장르뿐 아니라 대중 예술에서의 (재생산된 또는 재생 가능한) 규약도 꽤 엄격합니다. 규약은 대화적 기능이라는 예술의 필수적 부분을 형성합니다. 그것 없이는 예술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과학적, 지식적 분야의 산물도 또한 규약에 의해 구성됩니다. 창작은 해석과 이러한 규약의 사용을 깨는 것에 기초하는 만큼 그것들을 근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듯이, 우리는 종종 더 일반적인 룰을 따르기 위해 어떤 특수한 예술적 룰을 깨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M. : 박사님의 철학적 사고는 자기치장하기의 형태로서 몸을 의식하는 생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러한 집단적 문화현상의 분석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의도 인가요? 신체의 미학은 다소 개인의 차원에 적용을 다루는 듯이 보이는데요. 신체의 미학의 사회적, 정치적 바탕은 무엇인가요?

R. S. : 저는 이 변화에 있어서 어떠한 균열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몸 의식하기』에서의 나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집단의 관점과 명백하게 사회적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시작하는 포인트는 우리의 사회가 몸에 있어서 너무도 오해되고 위험한 개념에 지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몸을 매우 전형적인 재현적 미의 영역인 외적인 물체로서 보는 개념 말이죠. 이러한 종류의 몸에 대한 의식을 통해 우리는 미와 선전된 산업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신체의 미학의 중요한 차원은 이러한 관념이 생산하는 몸의 재현과 사회적 억압의 형태의 이러한 문화적 관념의 비평입니다. 이 책의 한 쳅터에서는 여성과 노인을 다룬 이슈에 집중하여 시몬 드 보봐르를 비평적으로 읽는 것을 통해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외적인 몸의 재현에 의해 점유되고 직접적으로 지배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몸의 개념을 안으로부터 얻어지는 내적인 경험의 미묘한 즐거움을 알고 즐길 수 있는 의도적인 의식으로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몸의 상태와 그것의 지각에 대한 더 많은 관찰을 요구합니다. 거기에는 더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일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끊임없고 빠른 정보의 세계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자극이 있는데, 이러한 셀 수 없고, 강력한 자극을 더 잘 조정하기 위해서 그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불면, 그리고 주의산만의 문제는 단지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들은 큰 공공적 손해를 일으키는 사회적 질병입니다. 고양된 의식과 반성된 경험을 통한 몸에 대한 늘어나는 자각은 그러한 문제에 대응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또한 어떻게 인종차별주의나 게이 혐오증들의 사회적 문제가 몸적 경험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박멸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 신체적 자각의 연구를 요구한다는 것을 (이 책에서)보일 것입니다. 왜냐면 관용에 대한 과격한 담화는 우리의 비반성적 감정에서 생기고 그 결과로 우리의 실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해로운 태도들을 없애는데 절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의식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개인과 사회사이의 명백한 이원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의식은 물론 언어를 포함한 사회적 구조와 경험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회는 동등하게 특히 개인들의 대화와 협동에 있어서 개인의 의식과 노력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우리는 유교사상이 개인주의적 철학이라기 보다는 사회중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라와 가정을 다스리는 첫 번째 스텝으로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식적 주체의 사적인 노력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은 사회적 분석과 공공의 의무의 연구가치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적절하게 이해했을 때 반드시 서로 보완이 되는 양측의 방향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하나의 잘 설립된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과정 또는 설명이 대립하는 방법론적 이원론을 인정하면서 같은 방법을 취할 것입니다. [더 기본적인 설명적 단계부터 연구하는] 신경과학과 진화론적 심리학은 우리의 행동이 사회적 그리고 인문과학의 퇴행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의 즉각적 경험의 특수한 성격은 또한 지각의 사회적 구조에 의해 결정되며, (사회적 또는 문화적) 행동에서 우리는 뇌의 신경적 활동에 의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터의 틀과 신경계의 통로는 문화적 중재에 의해 수정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최근의 연구는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방법의 다원성으로의 열림은 나의 프라그마티즘적 시도의 다원론적 입장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프라그마티즘의 미학에서부터 항상 나의 연구를 이끌어 왔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입장을 “포괄적 분열”의 논리적 모델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명제적 논리(“p 또는 q”)에서, 이러한 포괄적인 “또는”은 (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 이상의 대안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우리는 와인(p) 또는 물(q) 또는 한꺼번에 둘 다 마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그마티즘의 미학』에서 예를 들면 우리는 T.S. 엘리엇의 정련된 모더니즘적 시와 랩을 동시에 읽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삶에 있어서 때때로 하나만 골라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원론자의 입장의 프라그마티즘은 그들이 정말로 양립할 수 없고 상호 배타적이라서 결론을 내리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을 때, 우리에게 서로 다른 가치와 방법을 합하거나 중재하는 방법을 보도록 합니다. 이러한 입장이 삶의 다양한 좋은점과 지식의 형태를 최대화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1. 몸에 인장 등을 찍거나 새기는 것 [↑](#footnote-ref-2)
2. 프랑스의 시를 짓는 것으로 대항하는 문화를 슬램(Slam)이라고 하는데, 랩 배틀과 비슷하지만 시구는 짓는 것으로 어떤 의미에서 식자층의 문화라는 점에서 랩과는 다르다. 슬래머는 슬램을 하는 사람을 칭한다. [↑](#footnote-ref-3)